



# 미국 반려동물보험 성장과 보험회사의 진출

김유미 연구원

미국 인수어테크 레모네이드는 기존 사업영역인 가계보험과 연계하여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하였으며, 보험회사 메트라이프와 손해보험회사 NSM도 기존 반려동물보험회사를 인수하여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진출함.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관련 소비 및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1~2% 수준에 머물러 있어 반려동물보험의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됨

■ 미국 인수어테크 회사인 레모네이드(Lemonade)는 2020년 7월 주택 및 임차인보험과 연계한 반려동물보험을 출시하면서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새롭게 진출함

- 2015년 뉴욕에 설립된 레모네이드는 보험과 IT기술을 접목한 인수어테크 회사로 현재 28개 주에서 온라인 주택보험과 임차인보험을 주력으로 보험영업을 하고 있음
- 레모네이드는 주택 및 임차인보험 계약자의 7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나 보험료가 비싸다는 인식으로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반려동물보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함
- 레모네이드의 반려동물보험 상품은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MRI, CT 검사, 입원, 수술, 주사 또는 처방약을 포함한 사고 및 질병을 보장하며, 월 보험료 12달러(타사 평균 25달러)로 기존 주택 및 임차인보험 계약자에게는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함<sup>1)</sup>
  - 뿐만 아니라 건강 검진, 기생충, 혈액 검사, 백신접종 등 예방 및 건강 패키지를 특약으로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서비스까지 보장함<sup>2)</sup>

■ 한편 미국 2위 생명보험회사 메트라이프(Metlife)는 생명보험의 판매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2020년 초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진출한 바 있으며, 손해보험회사인 NSM도 10대 반려동물보험회사 중 하나인 엠브레이스(Embrace)를 인수하면서 반려동물보험 상품을 출시함

- 메트라이프는 저성장, 저금리로 인해 생명보험의 판매부진이 지속되어 수익성 강화의 일환으로 고성장하

1) Lemonade(2020. 7. 15), "This is How Much Pet Health Insurance Actually Costs"  
 2) TechCrunch(2020. 7. 15), "Lemonade launches pet insurance"

- 고 있는 반려동물보험 시장 진출을 위해 2020년 1월 반려동물보험회사 펫퍼스트(PetFirst)를 인수함
- 메트라이프는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단체건강보험에 반려동물보험을 선택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자녀를 갖지 않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돌보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복지 차원에서 수요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 메트라이프는 수많은 기업에 단체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반려동물보험을 기존 계약자에게 제공할 경우 단기에 높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손해보험회사 NSM도 2019년 4월 반려동물보험회사 엠브레이스를 인수하여 반려동물을 위한 종합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시작함
- 미국 반려동물보험 수입보험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2.6%로 고성장하고 있으나 가입률은 여전히 1~2%에 머물러 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미국 반려동물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9년 1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3% 증가하였으며, 2015년 6억 9천만 달러에서 2배 이상 증가함<sup>3)</sup>
  - 반려동물 의료비 증가 추세는 사람과 유사하거나 더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sup>4)</sup>,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 증가와 수의학의 발전으로 의료의 질이 높아져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1~2%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반려동물보험은 건강보험이 아닌 재물보험으로 분류되어 보험회사 입장에서 규제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확대 요인임
- 미국 가정의 68%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함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 분야는 더욱 다양해지고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미국의 반려동물 관련 소비는 약 9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지난 5년간 연 5% 이상의 증가율을 보임<sup>5)</sup>
  - 유형별로는 식품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의료케어 24%, 제품 및 의약품 26%, 기타(미용, 훈련, 보험 등) 12% 순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반려동물 전용 가전, 놀이터, 펫리조트 등을 비롯하여 펫테크(Pet Tech)<sup>6)</su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kiqi**

3) NAPIHIA(2020. 5. 26), "State of the industry 2020"

4) Einev, L.; Finkelstein, A.; Gupta, A(2016), "Is American Pet Health Care (Also) Uniquely Inefficient?", NBER Working Paper Series 22669

5) APPA(2019), "Pet Industry Market Size & Ownership Statistics"

6)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하여 혼자 가정에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관찰하거나 먹이를 주고, 실시간으로 음성 및 화상 대화를 나누는 등 어디서든 원격으로 반려동물을 케어해주는 제품 혹은 서비스